

‘교통사고 위험’ 지산IC 진출로, 오른쪽으로 옮긴다

터널과 거리 늘려 우회 진출로 조성...좌측 진출로는 진행차로 활용 1단계 2025년까지 하행 진출로 개통...상행 진출로, 중기과제 검토

광주시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개통은커녕 폐쇄 위기로 내몰렸던 77억원짜리 지산 나들목(IC) 진출로의 활용 해법을 제시했다.

안전 운전 위험을 가중하는 터널과의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해 맨 우측에 우회 진출로를 새로 만들고, 운전자에게 낯선 좌측 진출로는 진출로로 활용하지 않고 도로를 높여 차량 진행 차로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오후 제2순환도로 지산 IC 진출로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사고 위험 탓에 폐쇄도 고민했지만, 안전하게 재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진출하면서도, 용역 결과 사고 위험 요소로 지목된 터널과 거리를 확보해 안전한 교통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 시장은 설명했다.

산수터널과 지산터널 사이 내리막 형태의 좌측 진출로 일부 구간을 옹벽과 성토로 도로와 높이를 맞춰 주행 차로로 활용하고, 1~3차선은 주행, 맨 우측 4차로는 진출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맨 오른쪽으로 위치가 변경된 진출로는 터널과 거리를 늘려 시야, 인지 반응 시간 확보에 필요한 거리(194m) 이상인 215m를 확보하게 된다.

기존 진출로는 18m에 불과해 차량 정체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실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지산IC 진출

로 출입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심도 있는 용역 조사를 통해 일반도로보다 교통사고 위험도가 최대 14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광주시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 좌측 진출로를 완전히 매몰하지 않고 시설물 90% 이상을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미 건설된 조선대학교 사범대 진입도로와 연결해 교통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1단계로 하행(두암에서 소태 방향) 진출로를 먼저 개설하고, 반대편인 상행(소태에서 두암 방향) 진입로 개설은 다음 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행 진출로를 우측에 개설해 조선대 사범대 진입도로에 연결하는 데는 입체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경사진 부분(램프 구간) 옹벽 시공과 도로 포장 등에 49억원 안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통 예상시기는 2025년이다.

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반대편 2단계 사업은 지산유원지 개발사업과 연계해 중기 과제로 검토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존 지산IC 진출로 사업은 시민 안전이 무시되고 관행에 따라 이뤄진 잘못된 행정의 대표 사례”라면서도 “이번 방안은 더 안전하고, 폐쇄시설을 다시 활용하고, 인근 도로와의 연결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오후 동구 지산 IC 진출로 현장에서 IC 진출로 변경 및 대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1% 가능성이 시민 누군가에게는 100%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지산IC 활용 방안을 검토한 기간이 1% 위험 요인을 줄이고, 100% 안전한 광주로 향하는 경험과 축적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산IC 진출로는 광주시가 지산유원지 활성화와 무등산 관광객,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2018년 9월 착공했으며 민원 해결 과정에서 우측 진출로가 좌측으로 변경됐다.

총공사비 77억원을 투입해 폭 6.5m, 길이 670m로 2021년 11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위험성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는 새로운 계획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월 개청’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

1본부 3국체제 인원도 두배...일자리 창출·산단문제 선제 대응

전남도가 오는 7월 개청을 앞둔 동부지역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동부권 일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는 전남도 설명과 달리, ‘숫자 맞추기성’ 조직 개편, ‘동부권 눈치보기성 개편’이라는 지적이 의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전남도가 19일 민선 8기 1주년에 맞춰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를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은 기존 1국(환경산업국) 6과 24명 154명인 동부본부 1본부 3국(일자리투자유치국·문화산업육성국·환경관리국) 1관 11과 51명 320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게 골자다.

김영록 지사의 동부지역본부 4개 실·국 체제 확대 개편 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통합성, 균형발전, 산단 조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 동부권의 경제·문화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을 진행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특히 동부본부가 실질적인 ‘2청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본부장 직급(3급)을 2급으로 상향키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본청의 일자리경제본부와 동부본부로 옮겨 동부권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조성·지원체계를 일원화해 현재 전남지역 산단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겠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또 본청 관광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자원과를 동부본부의 산림보전·산림휴양과와 합쳐 문화산림휴양국을 신설하고 도립미술관의 문화콘텐츠허브·순천만정원 등 전남 정원산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여순사건지원단도 진상규명 및 사실조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부본부 청사 개청과 함께 옮기고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원행정담당관 기능도 보강키로 했다.

전남도는 아울러 초광역행정업무와 균형발전 업무를 전담할 균형성과담당관을 신설하고 남해안 관광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과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에너지공대지원과를 미래에너지산업과로 바꾸는 등 일부 과의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 정기인사 때 반영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AI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 오픈

사용자 지원·데이터유통 포털 등 활용 AI 모델 개발 촉진

광주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 실증, 창업, 인재양성 분야의 모든 서비스와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작됐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19일 사업단 대강당에서 김준하 단장을 비롯한 광주시,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 오픈식을 개최했다.

‘AI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가 추진하는 AI 집적단지조성 사업 중 하나로, 기업에게 다양한 AI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공하는 AI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AI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실증 3대 영역 데이터와 AI 집적단지 조성사업 관련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내 주요 데이터 포털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 지원포털’, ‘실증 지원포털’, ‘데이터유통 포털’,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구성되며, AI 기업의 제품 개발부터 데이터 상품 판매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용자 지원 포털’은 창업, 인재양성, 실증 등 AI 집적단지 내 모든 서비스의 사용자 지원 서비스 포털로 통합회원가입, 사업단의 다양한 공모

사업 신청 및 과제 관리, AI 인력 양성 교육 등 사업관리 및 인력양성 서비스도 담고 있다.

‘실증 지원포털’은 연구개발센터(R&D) 및 실증 테스트 지원을 위한 포털로 데이터센터와 연동해 실증 인프라 사용자 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자동차 등 3개 분야 77종 장비 확인 및 온라인 사용신청으로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유통 포털’은 실증 테스트를 위해 유입되는 데이터는 물론 저장된 데이터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업은 판매회원시스템을 통해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포털을 통해 데이터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데이터유통 포털에서 개방하기 어려운 민감 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업은 개인정보, 민감 데이터 등을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서 영화·드라마 제작하면 최대 5천만원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전남도가 영상산업 발전과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남에서 촬영·제작하는 영화·드라마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한다.

인센티브 지원 금액은 투자 및 편성이 확정된 영화·드라마 등 영상물에 대한 순제작비 중 전남지역 소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도내 소비액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이면 2~4회 차를 촬영

하면 1500만원, 도내 소비액이 최소 3000만원 이상이면 5회 차 이상 촬영하면 최고 5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내 소비액 인정 항목은 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다. 도내 다른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중복되면 동일 항목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지원 예산이 전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화예술이 숨쉬는 곳, 목포·신안으로 초대합니다.



신안 안좌도에 오는 연말 개관예정인 “세계 최초 물 위에 떠 있는 미술관”



신안 자은도에 조개박물관, 수석미술관, 자생식물연구센터 등의 “1004 뮤지엄 파크”



동물과 어류 13000여종의 남농로에 위치한 “목포 자연사 박물관”

- 신안군청 직원 일동
-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
-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이한철외 회원 일동
- 농협중앙회목포신안시군지부 직원 일동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일동
-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일동

- 신안군산림조합 직원 일동
- 목포농업협동조합 직원 일동
- 목포원예농협동조합 직원 일동
- 목포농산물(주) 직원 일동
-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지회 직원 일동
- 한국외식업중앙회목포시지부 직원 일동

- 근화건설(주) 직원 일동
- 가산토건(주) 직원 일동
- 삼아산업(주) 직원 일동
- (유)서남환경 직원 일동
- (유)중앙환경 직원 일동
- 목포시의료원 직원 일동

- 목포한국병원 직원 일동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
- 목포중앙병원 직원 일동
- 목포기독교병원 직원 일동
- 목포미즈아이병원 직원 일동